

국내 철도관광 ‘실크로드’ 열렸다



● 철도관광벨트 현황			
관광벨트	관광열차	운행시간	영업개시
충부내륙	O-트레인(충부내륙순환열차)	서울-제천-태백-영주	2013.4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영주-분천-철암	2013.4
남도해양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부산-보성	2013.9
		서울-여수엑스포	
평화생명	DMZ-트레인(평화열차)	서울-도라산	2014.5
		서울-백마고지	2014.8
강원청정	A-트레인(정선아리랑열차)	청량리-민동산-아우라지	2015.1
서해골드	서해금빛열차	용산-온양온천-익산	2015.2

‘5대 철도관광벨트’ 중 가장 최근인 2월 개통한 서해금빛열차.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해 온양온천 군산을 거쳐 익산까지 가는 관광열차로 차내에 온돌 객실과 족욕탕을 갖춰 인기 가 높다.

사진제공 | 코레일

코레일 ‘5대 철도관광벨트’ 완성

용산-온양온천-익산 ‘서해금빛열차’ 개통 열차마다 다른 테마…타는 것만으로 재미

여객에서 철도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교통 수단을 넘어 이제 그 자체가 훌륭한 관광콘텐츠이다. 유럽의 관광강국인 스위스나 프랑스가 철도를 현지 교통수단보다 관광상품으로 접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코레일이 이런 추세에 발맞춰 2012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5대 철도관광벨트’는 철도를 활용한 관광콘텐츠로 키워 국내외 관광객의 높아진 기대치를 맞추기 위한 사업이다.

●천덕꾸러기 적자 간선노선 관광상품 개발

지난 2월 용산에서 온양온천을 거쳐 전북 익산까지 가는 서해금빛열차가 개통했다. 이로써 코레일이 2012년 7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5대 철도관광벨트’가 마무리됐다. ‘5대 철도관광벨트’는 그동안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소외되고 낙후됐던 간선철도 중에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노선을 대상으로 철길과 간이역, 지역 관광자원을 묶어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충부내륙순환열차 O-트레인’, ‘백두대간협곡열차 V-트레인’, ‘남도해양열차 S-트레인’, ‘평화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A-트레인’, ‘서해금빛열차’가 차례로 만들어졌다.

‘5대 철도관광벨트’의 각 노선은 공통적으로 기차를 타는 그 자체에서도 여행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조정을 맞췄다. 각 열차마다 차별화된 테마의 설비와 이벤트를 갖춰 승객들이 각 노선을 이용할 때마다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철도관광벨트 중 O-트레인과 V-트레인은 개통 1년8개월만인 지난해 말 각각 30만명 이상이 이용하며 관광열차의 대표명사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 개통한 서해금빛열차는 ‘온돌마루실’과 달리는 ‘족욕카페’ 등이 인기를 얻으며 주말마다 티켓 구하기가 힘들 정도다.

연계노선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지난해 중앙·태백·영동·경전선 등의 이용객이 전년도보다 5.2%(67만명) 늘었다. 최초로 지역명칭을 열차이름으로 사용한 정선아리랑 열차는 정선선 일반열차보다 수송량은 약 2.4배, 수익은 7.9배 늘었다.

●산골 간이역 복원, 겨울철 인기관광지 등극

코레일은 5대 철도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90만명이 이용에 115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생산유발 효과 1698억원, 취업유발 2146명이라는 성적표를 거두었다.

또한 하루에 10명도 찾지 않던 분천, 양원, 철암역 등에 열차 운행 이후 하루 1000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덕분에 분천과 철암은 현지 재래장터가 활기를 되찾았고, 연천, 양원선 평 지역은 반짝장터가 새로 만들어지는 등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특히 이종 산간오지 간이역에만 분천역은 산타마루로 변신해 인기 가를 여행지로 58일만 총 10만 6000여명이 방문하는 기록을 세웠다.

코레일은 관광열차가 운행하는 관련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분천역과 같은 특화된 관광역을 추가로 개발하고 간선노선과 연계한 결합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 말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이 개통하면 2018평창동계 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강원청정 철도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정부의 ‘유라시아 구상’에 발맞춘 철도관광 실크로드를 완성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재현 전문가 oldfield@donga.com

경정 출주표 | 25일

★우승후보 ○우승도전 ○상대 △북병

25일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경기출주표

전자카드, 도박중독 막는 ‘만능카드’ 아니다

사감위, 30일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 결정
합법사행산업 규제 땐 불법도박 증가 우려
전자카드 유병률 감소 효과도 설득력 없어

사행산업 전자카드 전면도입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전자카드 전면도입 논리를 뒷받침하는 ‘전자카드가 도박중독 유병률을 줄이고 사행체의 매출감소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시행체(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들이 불응표를 제기하고 있다. 전자카드는 도박중독을 막는 ‘만능카드’일까.

●30일 사감위 전체회의서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 결정

사감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 및 2015년 전자카드 확대 시행 권고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사감위 전문위원회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의결하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던 ‘논란의 시행안’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감위는 올해부터 경주류에 대해 전자카드 지점을 확대하고 2018년부터는 경마, 경륜, 경정과 복권류, 카지노 등 모든 사행산업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베타스포츠 참여자들은 반드시 전자카드를 통해 경주권을 구입해

야 한다. 또 경마 등 경주류 장외발매소의 20%는 당장 을 하반기부터 전자카드 전면지점(현금 3만원 병행)으로 전환해야한다. 이어 내년에는 30%, 2017년에는 70%까지(현금 1만원 병행) 확대된다.

사감위는 그동안 전자카드 시범운영으로 도박중독 유병률(전체 인구 중에서 도박중독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점유율)이 줄고 시행체가 우려하는 매출감소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논리로 전자카드 전면도입 정책을 강행해왔다.

우선 경륜경정 동대문지점(2012.8월 전자카드 전면 도입) 사례를 들어 전자카드의 유병률 감소 효과를 주장한다. 지난 2013년 9월 ‘사행산업 전자카드제도 도입 영향 분석 연구’에서 2008년 6월 유병률 70%였던 동대문지점이 전자카드 전면도입 후 40.3%로 29.7%p 감소했다는 것. 여기에는 마사회 인천중구 지점(5만원 현금 병행)의 전자카드 도입 후 유병률도 40.9%p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다.

●“사감위 도박중독 연구 결과 설득력 없다”

사감위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시행체들의 입장은 어떨까. 경마, 경륜, 경정 시행체인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역시 전자카드 도입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전자카드 효과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사감위와 많은 차이가 있다. 먼저 도박중독 유병률을 의문을 제기한다. 사감위 조사에서 특이한 것은 전자카드를 전혀 시

행하지 않는 경륜 장안지점의 유병률은 6.3%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공단과 마사회 측은 이러한 점을 들어 전자카드의 유병률 감소효과가 설득력이 없다고 말한다.

전자카드로 인한 매출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감위측 주장에도 반론을 제기한다. 경륜측은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된 동대문지점은 시행 1년 후 도입 전에 비해 매출이 58.7% 줄어 반 토막이 났고 2년 후에는 시행 전 대비 65.7%가 줄었다”며 “지난해는 16억원의 운영적자를 냈었다”고 밝혔다.

●“합법사행산업 규제 땐 불법도박만 더 키울 수도”

경마, 경륜의 매출은 수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자카드제가 전면 도입되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마 경륜의 매출감소는 단순히 해당 시행체의 매출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공공 및 지방재정 지원과 축산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조성에 기여해 온 사업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체들은 전자카드 전면 도입을 사실상 사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위기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합법사행산업 규제 강화는 불법도박사정만 키우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명확한 효과와 검증되지 않은 전자카드라는 규제를 합법시장에 덧씌울 경우 풍선효과로 오히려 세금 한 톨 지 않는 불법도박시장만 웃게 만드는 역기능을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재호 기자 sol@donga.com

“경륜경정, 혁명적 사고 전환 없으면 미래 없다”

이명호 경륜경정사업본부장 취임
“경륜·경정은 뿌리…사명감 갖자”

“지금 경륜경정사업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사고의 혁명적인 전환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이명호 신임 경륜경정사업본부장이 현재 경륜경정사업을 위기로 진단하고 직원들의 사고 전환을 주문했다. 이 본부장은 21일 광명스포츠파움 광명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지속적인 매출감소, 전자카드 전면도입 등 경륜경정사업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냥 노를 저어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돛이나 엔진을 교체하는 등 사고의 혁명적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륜경정은 오늘의 공단을 있게 한 뿌리다.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바로설 수 없다. 자신감과 사명감을 갖자”고 당부했다. 또한 직원들이 서로 신뢰하며 행복하고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신부터 낮은 자세로 솔선수범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56세인 이 본부장은 1979년 공단의 전신인 국민체육진흥재단 입사 후 공단 기획조정실 예산과장, 재무관리실장 등을 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명호 신임 경륜경정사업본부장이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직원들의 혁명적 사고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임한 기획예산 전문가로 경륜 경주운영실장, 심판실장, 경정관리실장은 물론 투표관 사업실장, 감사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임기는 2017년 3월까지 2년이다. 한편 공단의 핵심 사업인 경륜경정사업본부장에 내부지원이 승진 임명된 것은 1994년 경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연재호 기자